

인터뷰 - 정효성(방송과 기술 편집장)

방통융합시대의 진화된 기술을 담고, 독자와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소개

2010년부터 『방송과 기술』의 편집장을 맡게 된 ‘정효성’입니다. 현재 EBS(한국교육방송공사) 기술기획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 16년차입니다.

제 가족을 소개하자면, 아리따운 아내와 토끼처럼 귀엽고 사랑스런 두 딸이 있습니다. 두 아이는 쌍둥이로 어렸을 적에는 키우기가 보통 경우의 두 배 정도로 힘들었지만 지금 저에게 주는 기쁨은 열 배 이상인 것 같습니다. “쌍둥이 키워보셨나요? 키워보지 않으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농담이구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듯 가족은 제 인생의 희망이자 삶의 에너지입니다.

현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보통의 샐러리맨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미래 먼 어느 때 ‘빵 굽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망

어떤 콘텐츠를 실어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방송과 기술』이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껏 『방송과 기술』은 Field Report, Multi User, Expert Training, Contents, Tech&Trend 등 다양한 콘셉트를 바탕으로 방송기술에 대한 전문적이면서도 폭넓은 내용과 방송 현장의 생생한 모습, 새로운 기술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과 기술』이 전문서적으로서의 권위와 인지도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루는 내용이 기술적인 내용이 많고 방송장비 위주의 내용으로 채워지다 보니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다소 무겁고 어려운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쉽게 손이 가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과 기술』은 우리 방송엔지니어들만의 세계를 보여주고, 우리들만의 관심사를 논하고, 우리에게 한정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엔지니어는 물론 방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친한 친구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과 기술』에 이성과 감성을 함께 공유 시키고자 합니다. 즉,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사람의 감성을 깨우고 공감시킬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Open Mind(열린 마음)'로 다가가는 『방송과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역할

요즘은 방통융합 시대입니다. 방송기술만이 우리의 경쟁력이 아니고, 방송기술은 물론 통신, IT,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을 접하고 이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방송과 통신 그리고 IT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과 기술을 최대한 살려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과 기술』은 방통융합 관련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진화에 대한 소개의 장이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단점은 상호 보완하여 미래 방송환경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송과 기술』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들의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들은 시·공간적으로 모두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기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로 뭉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들의 파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평소 접하지 못했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을 통해 숨어있는 내면의 세계를 깨우고, 바쁜 가운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획

2010년은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으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성적인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균형점을 맞추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2010년 『방송과 기술』에서 다룰 내용은 각 섹션마다 개성이 넘치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ASO 시범사업, 2010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3DTV 등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물론 음악과 미술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제시해 줄 편안한 내용도 담을 예정입니다. 각 섹션 모두가 회원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뽀로로



일과 사람들



명의

고민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찾으려고만 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책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기술』이 얼마만큼 회원님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나날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방통융합 및 IT 관련된 신기술을 어떻게 선별하여 적기에 소개할지, 『방송과 기술』을 통해 얼마만큼 편안한 휴식을 회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등이 고민이 됩니다.

한편의 책은 끝없는 갈등과 고민의 결정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손에 얹어지는 책은 단순한 활자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통해 새 생명을 잉태하듯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위원들을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보일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오

해가 바뀌면 다들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미래에 대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저도 2010년에 『방송과 기술』편집장을 맡게 되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처음이라 떨리고 긴장됩니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회원님들과 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을까? 갖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기술』이 항상 회원님들과 독자들 곁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한해도 회원님들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